

삶의 만족과 정부의 질

배 정 현*

..... <目 次>	
I. 서론	IV. 분석결과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맺음말
III. 연구설계	

<요 약>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각 국가는 정부의 질을 향상시킴으로 시민의 삶의 만족을 제고시키려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아시아 8개국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인식하는 정부의 질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분석하여 개인의 삶의 만족(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가마다 유의미한 요인은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치적 안정, 정부효 과성, 법의 지배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주제어: 정부의 질, 삶의 만족, 삶의 질, 행복]

I. 서론

최근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자들 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Diener(2009)와 Veenhoven(1996)은 주관적 웰빙에 대한 개념과 측정으 로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으로 경제적 발전이 중시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시민들은 가치관의 변화로 시민들은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후기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으며(Inglehart, 1997), 이는 경제적 발전이 자동적으로 삶의 만족과 삶의 질을 제고시키지 않으며 경제적 요인 이외의 다양한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jhbae75@gmail.com)
논문접수일(2014.1.29), 수정일(2014.2.27), 게재확정일(2014.3.11)

다른 요인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박종민·김서용, 2002; 고명철·최상욱, 2012; Lambiri et al., 2006).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의 증가와 더불어 민주주의 국가들은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게 되었다. 제1의 민주화물결¹⁾을 거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복지사회를 추구하며 삶의 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민주주의제도를 근간으로 한 현대 국가들은 시민의 복리증진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서재호 외, 2012; Hall, 2003; Glaser et al., 2000). 정부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정부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국민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제도, 정책, 활동을 포함하는 정부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삶의 만족,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정부의 질이 개인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거버넌스 지표(Governance indicators)를 이용한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경제적 소득이 아니라 정부의 질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elliwell and Huang, 2008). Bjørnskov, Dreher and Fischer(2010)의 연구결과는 공식적인 정부의 제도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amanni과 Hölmlberg(2010)의 연구에서도 정부의 질은 행복지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빈곤 국가뿐만 아니라 부유한 OECD국가에서도 정부의 질과 행복지표간의 관계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정부의 질과 삶의 만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국가의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정부의 질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Helliwell and Huang (2008)의 연구, Samanni and Hölmlberg(2010)의 연구 등 개인수준에서 조사된 삶의 만족을 국가 단위의 집합적 지표로 활용하여 국가수준의 객관적 지표들과 함께 분석하였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질과 삶의 만족에 대한 관계를 검증한 연구이다. 집합적 자료와 함께 국가들의 객관적 지표들을 사용한 분석은 개별 국가들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인지하는 ‘만족’이라 주관적인 느낌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미시적인 수준에서 개인수준의 정부의 질과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상당수의 연구들은 행정서비스 제공, 공공서비스 만족 등 정부의 질의 하위 영역에 속하는 특정 영역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최준호 외, 2003; Grzeskowiak et al., 2003; Sirgy et al., 2000, 2008).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삶의 만족에 중요 영향요인으로 시민의 생활과 밀접

1) Huntington(1991)은 민주주의를 ‘절차적 수준’으로 제한한 다음 민주화물결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1의 민주화 물결은 1828~1926년, 제2의 물결은 1943~1962년, 제3의 물결은 1974~현재의 시기에 포함된다.

한 정부의 특정 영역(도로, 교통, 소방, 학교 등)에 대한 만족만을 고려한 분석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²⁾ 따라서 특정 영역의 정부활동에 대한 만족을 넘어서 포괄적인 정부활동에 대한 시민의 평가이자 정부의 질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거시적인 분석과 미시적 분석의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미시적인 수준인 개인수준의 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정부의 질’과 개인의 ‘삶의 만족’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미시적인 수준의 개인자료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먼저 개인이 인지하는 정부활동에 대한 평가로서 정부의 질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시하는 정부의 질보다 구체적이고 개별 시민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직접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 국가 내에서도 개별 시민들 간에 정부의 질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수준에서 인지하는 정부의 질은 결국 개인이 속해있는 국가의 정부활동의 좋고 나쁨을 측정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다시 기존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던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질’이라는 개념은 시민과 정부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념이다. 많은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거시적인 지표와 더불어 시민들이 인지하는 정부의 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시민이 인식하는 정부의 질이 시민 개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은 본 연구의 핵심질문이다. 둘째,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별로 시민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제시하기 위해 삶의 만족, 정부의 질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된 AsianBarometer Survey를 활용하여 아시아 각국의 정부의 질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삶의 만족

2) Sirgy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교육, 건강보험(healthcare), 직업, 쇼핑, 레저, 대중교통, 안전 등의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확인하였으며, Grzeskowiak et al.(2003) 또한 여가시설, 공립학교, 소방, 경찰 등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삶의 질에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1960-70년대를 시작으로 개인이나 국가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행복이 무엇이며, 무엇에 근거하여 정의될 수 있는가에 대해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심리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등으로 연구되었다.

삶의 만족은 주관적 안녕, 삶의 질, 행복 등 유사한 개념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Diener and Lucas(1999)는 ‘삶의 만족’을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한다. Myers and Diener(1995)는 ‘주관적 안녕’을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사고정향’으로, Veenhoven(1984)는 ‘주관적 안녕’은 행복의 정서적(affective) 측면을 구성하며, ‘삶의 만족’은 행복의 인지적(cognitive) 측면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2004)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 체계 안에서 자신의 목표·기대·관심과 관련하여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자각’이라 정의하고 있다. 삶의 질에 있어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가치 중에서 만족과 즐거움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김정동·이홍구·신도철, 1983). Stock, Okun and Benin(1986)는 삶의 질 또는 주관적 안녕은 행복(Happiness), 도덕(Morale), 만족감(Satisfaction)의 3가지 지표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고 한다.³⁾ 행복은 감정적 차원의 삶의 질을 반영하고 삶의 만족은 평가적 차원의 삶의 질을 반영한다(박종민·김서용, 2002). Shin and Johnson(1978)은 ‘행복’을 자신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조명한 외(1994)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과 행복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

기존 연구들은 시민들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충족된 정도를 삶의 만족으로 이해한다.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다. 과거 근대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나 경제성장이 인간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고 여기며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발전(GDP)이외에 개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현대사회에서의 삶의 만족은 보다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소득 외에도 사회 인구학적 특성(연령, 성별, 교육수준)과 같이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Frey and Stutzer, 2000). 자아존중감, 삶에 대한 자기 통제감, 외향적 성격도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Myer and Diner, 1995).

3) 행복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비율을 의미하며, 도덕은 자신의 삶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낙관의 정도로 정의하며, 만족도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만족하는 정도를 지칭한다(조명한 외 1994; Stock, Okun and Benin 1986)

둘째, 정치 제도와 관련하여 국가권력의 분권화 정도(Frey and Stutzer 2000), 민주주의 경험(Inglehart, 1999),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Michalos, 2003), 의료제도 정립(Kirkcaldy, Furnham and Veenhoven, 2005) 등 제도적 요인이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셋째, 삶의 만족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양현미, 2007; OECD, 2006), 실업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의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달라진다(Frey and Stutzer, 2001). 또한 사회자본(박길성, 2002; 박희봉·이희창, 2005; Myers and Diener, 1995)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삶의 만족과 행복은 객관적인 생활환경과 그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된다(Hollar, 2003).⁴⁾

경제적으로 생활이 궁핍하고 상품이 부족한 과거 근대사회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개인이 삶에 만족을 느끼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경제적인 풍요를 이룬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요인만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경제적 요인만이 중요 요인으로 간주되다가 개인적 특성으로 성격, 가치관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적 요인에 까지 중요 요인이 확대되었다. 특히 시민 개인은 국가 내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의 제도, 정부의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전제로 본 논문에서는 삶에 대한 기준이 경제적 요인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의 제도와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본 논문은 개인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기에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거나 불만족할 때 그에 대한 영향을 주는 정부의 제도와 활동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2. 정부의 질

비민주주의 정부나 일당전제체제에 의해 통치되어오던 많은 국가들이 제3의 물결 이후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민주주의의 정부형태는 세계로 확장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의 90%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정부의 정책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면 시민들은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정부를 신뢰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정치신뢰, 정치만족, 정부신뢰는 민주주의 제도의 안정성과 경험과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 경험이 오래되어 민주주의 체제가 안정화되었거나 또는 민주주의 경험이 짧은 신생민주주의 국가이건 상관없이 정치만족, 정치신뢰 및 정부에 대한 신

4) 삶의 만족이나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항상성을 가지고 지속되기 때문에 사회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명철, 2013; Cummins and Nistico, 2002).

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있다(Catterberg and Moreno, 2006). 특히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통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기보다 오히려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정치권력을 결정하는 제도의 안정성으로 시민들이 인식하는 정치만족과 신뢰를 제고시킬 수 없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민주주의 제도만으로 시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정치만족과 정부신뢰를 증가시키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시민의 선호에 부응해야 하며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 요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의 질은 ‘좋은 정부(Good Government)’와 관련된다. 정부의 질이 높은 정부는 바로 좋은 정부를 의미한다. 정부의 질의 개념 및 기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개념과 측정지표는 통일되지 않고 있다.

먼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질은 시민 개인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 보장 정도로 정의된다(North, 1981; Knack and Keeper, 1995; La porta et al., 1999).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경제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는 좋은 정부이며 정부의 질이 높다.

두 번째는 정부의 질을 불편부당(impartiality)의 개념을 사용하여 정의한다(Rothstein and Teorell, 2008). Rothstein and Teorell(2008)은 민주주의 개념이 국가의 권력 형성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라면 정부의 질의 개념은 국가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러한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Easton(1965)의 정치체제의 투입(정부나 정치권력 형성)과 산출(정책집행)을 포함한다. 정부의 질은 공무원의 선출(민주성)과 정책수행에서 권력행사를 제한함으로써 특정집단에게 불공정한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불편부당으로 구성된다. 특히 정책집행에 있어 불편부당이 핵심이다. 정치과정에서 정부의 질을 독립변수로 정치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투입중심의 민주주의 정도와 경험보다 훨씬 더 설명력이 높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이현우, 2013).

세 번째는 좋은 정부와 정부의 질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제시되고 널리 사용되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정의한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과 거버넌스 지표(Governance Indicators)이다. Kaufmann, Kraay, and Mastruzzi(2009)은 ‘거버넌스’를 국가 내에서 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의 제도나 전통으로 정의하고 구성요소로 세 가지 제시하였다. 첫째는 정부가 선택, 감독, 대체되는 과정의 합리성, 둘째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건전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역량, 셋째는 시민과 국가간의 경제적·사회적 관계를 지배하는 제도에 대한 국가와 시민의 존중 등이다.⁵⁾

세계은행(World Bank)의 『Governance Matters VIII』(Kaufmann et al., 2009)는 212개국에 대하여 거버넌스 지표(Governance Indicators)를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참여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의 부재(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정부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법의 준수(Rule of Law)’,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참여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은 시민들이 그들의 정부를 선택하는데 있어 참여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인식과 표현, 결사, 언론의 자유 등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된다. 둘째,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의 부재(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는 헌법에 위배되거나 정치적 폭력과 테러를 포함한 폭력적 수단에 의해 정부가 불안정하거나 전복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다. 셋째, 정부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이다. 공공서비스의 질, 공무원의 자질,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중립성, 정책형성과 집행의 질, 정책을 위한 정부노력에 대한 신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Rauch(1995)와 Rauch and Evans(1997)는 정부의 질의 요소로 정부의 효율성과 관료제의 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입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넷째,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은 민간부문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건전한 정책과 규제를 형성시키고 집행하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다. 다섯째, 법의 지배(Rule of Law)는 계약이행·치안·사법 등의 분야에서 법의 준수 정도로 범죄나 폭력의 가능성, 계약집행, 재산권, 경찰 그리고 법원의 질까지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는 다양한 종류의 공공부문의 부정행위 내지 비리 방지 정도에 대한 인식이다.⁶⁾

이상과 같은 정부의 질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정부’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시민의 선호에 부응하며 시민의 요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정부이며, 이러한 정부의 질은 높다. 정부의 질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한다.

앞에서 설명한 정부의 질은 객관적인 정부의 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거시수준에서 국가의 전체적인 정부활동이나 제도의 정도이다. 많은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객관적인 국가지표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지표는 주관적으로 개인이 인식하는 정부의 질과 다를 수 있다. 객관적인 경제지표와 개인이 인지하는 경제적 상황이 다르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제도와 정부활동에 대한 정보와 시민들의 경험을 통해 개인이 인

5)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정부의 질을 정의하는데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거버넌스 개념정의는 측정하기 어렵거나 동어반복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개념의 바탕에서는 좋은 정부나 정부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를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Keefe, 2004).

6) 좋은 거버넌스와 정부의 질을 구분하여 차별화를 주장하기도 한다(Rothstein and Teorell, 2005). 세계은행의 좋은 거버넌스 개념(Kaufman, et al., 1999, 2010)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며 좋은 거버넌스가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에 너무 큰 비중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식하는 정부의 질을 평가한다.⁷⁾ 이러한 시민의 주관적인 평가는 객관성이 부족하며 국가의 객관적인 통계지표와 다르게 측정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나 시민이 원하는 좋은 정부의 의미를 더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관적인 정부의 질에 대한 분석은 시민의 선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부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판단하여 차후 정부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 정부의 질의 개념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정의를 사용하며,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거버넌스의 5개 항목(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 부패통제)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참여와 책임성은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자유권과 선거권), 시민권,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이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정치적 안정성은 정부가 정치적 불안정, 테러나 폭력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생계나 삶을 보호하는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효과성은 시민들의 정부서비스에 대한 인식으로 관료제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정책의 형성과 집행능력을 평가한다.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법의 지배와 부패통제는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의 개념에서 도출된다(Rothstein and Teorell, 2008). 불편부당성은 “정책이나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법 집행 혹은 권력의 행사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의 지배가 도출되고, 좋은 정부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부패가 도출된다. 여기서 법의 지배는 ‘법의 지배’는 법 집행 혹은 권력의 행사과정에 초점을 맞춘 절차적 측면에 한정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한다.

규제가 적은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제기되기 때문에 ‘규제의 질’ 요소는 배제시켰다(박종민·장용진, 2012; La Porta et al., 1999). 본 연구의 설명변수인 정부의 질은 정부활동, 제도의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며 동시에 결과적인 측면과 과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

3. 삶의 만족과 정부의 질

현대 국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시민들의 삶의 만족은 그들의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반영해 평가된다(Eckersley, 2000). 이러한 사회적·환경적 요인은 국가의 제도와 정부활동에 의해 형성되며 변화하게 된다. 즉 정부의 질은 시민들의 삶의 만족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은 바로 정부활동의 최종목표이자 결과물이다.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국가는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정부

7) 정부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시민수요 파악, 시민선호 반영, 행정의 당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한인섭, 2009; 고명철, 2013; Miller and Miller, 1991).

의 질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질에 대한 많은 연구는 정부의 질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Svallfors (2012)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질이 복지국가의 정통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Rothstein and Teorell(2008)은 정부의 질이 삶의 여건, 사회신뢰,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권력의 형성(투입)뿐만 아니라 권력의 행사(산출) 부분에 중점을 두는 정부의 질이 시민들의 정치신뢰 및 삶의 만족 그리고 행복수준에까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김태룡 외, 2000; 최준호 외, 2003; 이태종 외, 2005; Milbrath, 1979; Helliwell and Huang, 2008; Bjørnskov, Dreher and Fischer, 2010; Ott, 2010; Samanni and Hölmberg, 2010; Whiteley et al., 2010; Rode, 2013). Milbrath(1979)는 시민들의 삶에 대한 낮은 만족은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을 의미하며,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삶의 만족에 대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Helliwell and Huang(2008)의 연구에서 시민들이 삶에 만족을 느끼는데 정부가 신뢰할만한 환경을 제공하고 정직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환경조성과 정부의 능력이 바로 정부의 질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Ott(2010)의 연구에서도 시민의 행복은 민주주의 질보다 거버넌스의 질과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Bjørnskov, Dreher and Fischer(2010)와 Rode(2013)의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좋은 제도가 시민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Rode(2013)는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에 관한 공식적인 제도의 정립과 운영 정도가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Whiteley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질의 한 구성개념인 정부의 효과성에 해당되는 정부성과를 중심으로 시민이 인식하는 정부성과가 삶의 만족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준호 외(2003)의 연구에서도 교육환경과 재난 관리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만족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부의 질을 나타내는 정부의 활동과 제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초점을 둔다. 삶의 만족을 종속변수로, 정부의 질을 설명변수로 하며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중시되어 왔던 개인의 경제적 요인(소득)을 통제 변수로 포함하여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이 시민 개인의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과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삶의 만족은 정부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보와 경험을 통해 사회, 환경, 제도를 인식하고 정부의 질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질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부의 질은 참여와 책임감, 정치적 안정성,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 부패통제 등 5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정부의 질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 참여와 책임감에 대한 인식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정부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법의 지배에 대한 인식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5. 부패통제에 대한 인식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의 질의 각 구성개념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행복간의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05년부터 2008년도 아시아바로미터(AsiaBarometer Survey)를 실시한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로 한정한다. 연구 대상은 대만,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으로 8개국이다.⁸⁾ 분석에서 사용된 8개국 총 응답자는 8,079명, 남성 47.6%, 여성52.4%이고, 20대 24.8%, 30대 25.6%, 40대 22.9%, 50대 16.5%, 60대 이상 10.3%로 구성되어 있다.

2. 측정

1) 종속변수: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은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발생하므로 일정기간 지속된다. 삶의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하는 총체적인 평가이다. 삶의 만족의 측정지표로 두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첫째, “귀하는 생활수준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3점), 어느 정도

8) 국가 약자: 대만(TWN), 인도네시아(IDN), 일본(JPN), 한국(KOR), 말레이시아(MYS), 필리핀(PHL), 싱가포르(SGP), 태국(THA)

만족(2점), 어느 정도 불만족(1점), 매우 불만족(0점).” 둘째, “모든 것을 다 고려하면 요즘 귀하는 행복하십니까?: 매우 행복(4점), 약간 행복(3점), 행복도 불행도 아님(2점), 약간 불행(1점), 매우 불행(0점).” 이 문항은 삶에 대한 감정적인 평가이다.(박희봉·이희창, 2005).⁹⁾

2) 영향변수

영향변수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의 확보를 위해서 복수항목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¹⁰⁾ 각 구성개념에 대한 변수들은 거버넌스 지표와 이론적 문헌 검토를 통해 선정되었다. 각 변수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지표의 점수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개인수준의 서베이 문항¹¹⁾을 참고하여 아시아바로미터 문항을 선택하였다.¹²⁾

(1) 참여와 책임감

시민들의 참여 보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섯 문항을 사용하였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선거권, ㉡ 단체에 참여할 권리, ㉢ 모임과 시위할 권리, ㉣ 언론의 자유권, ㉤ 정부를 비판할 권리”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만족(3점), 어느 정도 만족(2점), 어느 정도 불만족(1점), 매우 불만족(0점)”으로 4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참여변수는 다섯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9) 행복은 감정적 차원의 삶의 질을 반영하고 삶의 만족은 평가적 차원의 삶의 질을 반영한다는 의견도 있다(박종민·김서용, 2002).

10) 정부의 질에 대한 구성요소 첫 번째인 참여를 측정하는 5문항의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746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책임감에 대한 알파계수는 0.732, 정치적 안정성의 세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664, 정부효과성의 문항은 0.691, 법의 지배 문항들의 알파계수는 0.655로 나타났다. 마지막 부패통제를 측정하는 지표는 2개의 문항으로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0.554로 나타나 신뢰성이 낮게 나타나 지표를 구성하는 문항으로서의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1) 세계은행의 거버넌스의 6개 하위 카테고리의 각 점수는 거버넌스 인식에 대한 개인수준의 서베이 자료를 통한 측정치들을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집합적 지표로 이루어진 것이다. 2008년도 지표의 점수는 33개의 다른 서베이 자료로부터 도출된 거버넌스 인식에 대한 441개의 개인수준의 변수들을 통합하여 산정되었다(Kaufmann et al., 2009).

12)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표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대표적인 자료 출처를 근거하여 문항을 선택하였다. 첫째, 참여와 책임감에 대한 지표를 구성하는 참여변수는 Institutional Profiles Database, Cingranelli Richards Human Rights Database and Political Terror Scal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Riskwire & Democracy Index, 책임감은 Political Risk Service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의 Democratic Accountability. 둘째, 정치적 안정성은 Business Environment Risk Intelligence Business Risk Service/Financial Ethics Index. 셋째, 정부효과성은 Gallup World Poll, Afrobarometer, Asian Development Bank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s. 넷째, 법의 지배는 Gallup World Poll, Economist Intelligence Unit Riskwire & Democracy Index. 마지막 부패통제는 Gallup World Poll, Afrobarometer(Kaufmann et al., 2009).

정부의 책임감을 평가하기 위해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들은 더 이상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정부 공무원은 나 같은 시민들의 생각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동의(0점), 동의(1점), 동의도 동의하지 않음도 아님(2점), 동의하지 않음(3점), 매우 동의하지 않음(4점)”이다. 책임감 변수는 두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2) 정치적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첫째, “귀하는 정부가 인종 갈등에 대해 어느 정도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귀하는 정부가 종교적 갈등에 대해 어느 정도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의 응답은 “매우 잘 처리함(3점), 상당한 정도 처리함(2점), 잘 처리하지 못함(1점), 매우 잘 처리하지 못함(0점)”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귀하는 공공 안전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3점), 어느 정도 만족(2점), 어느 정도 불만족(1점), 매우 불만족(0점).” 정치적 안정성은 세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정부효과성

정부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첫째, “귀하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처리함(3점), 상당한 정도 처리함(2점), 잘 처리하지 못함(1점), 매우 잘 처리하지 못함(0점).” 둘째, “귀하는 공교육 체계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셋째 “귀하는 공중 위생 시스템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신뢰함(3점), 약간 신뢰함(2점), 별로 신뢰하지 않음(1점), 전혀 신뢰하지 않음(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효과성은 세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4) 법의 지배

시민들이 인식하는 정부의 질의 한 구성요소로서 법의 지배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첫째, “귀하는 경찰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둘째 “귀하는 사법체계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신뢰함(3점), 약간 신뢰함(2점), 별로 신뢰하지 않음(1점), 전혀 신뢰하지 않음(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귀하는 정부가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처리함(3점), 상당한 정도 처리함(2점), 잘 처리하지 못함(1점), 매우 잘 처리하지 못함(0점).” 법의 지배는 세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5) 부패통제

부패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첫째, “귀하는 정부가 정치적 부패에 대해 어느 정도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Likert 4점 척도로써 “매우 잘 처리함(3점), 상당한 정도 처리함(2점), 잘 처리하지 못함(1점), 매우 잘 처리하지 못함(0점).” 둘째,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부패가 만연하다: 매우 동의(0점), 동의(1점), 동의도 동의하지 않음도 아님(2점), 동의하지 않음(3점), 매우 동의하지 않음(4점)”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패통제의 변수값은 두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통제 변수의 측정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 이외에도 기존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진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였다.

첫째, 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삶의 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는 제시되는 사회신뢰를 통제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대할 때 매우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응답자의 사회신뢰를 통제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였다. 먼저 경제적 상황이 삶의 만족에 끼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소득 수준을 통제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소득과 삶의 만족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행복에 대한 소득의 영향력은 국가 간에는 약하게 작용하나 국가 내의 구성원들 간에는 강하게 작용한다(Seidman and Rapkin, 1983).¹³⁾ 또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을 통제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아시아 8개국의 시민들의 삶의 만족 수준은 평균 2.78점으로 나타났으며, 총 응답자 중 58.2%가 삶에 만족하거나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¹⁴⁾

13) 개인의 절대적 소득보다 상대적 소득이 삶의 만족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객관적인 소득액이 아니라 소득의 전반적인 분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Moraewtz 1977; Liang, Kahana and Doherty 1980; Helliwell and Huang 2008).

14) 총 응답자 중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두 문항의 평균값이 3점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표 1〉 국가별 삶의 만족(행복지수)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

		TWN	IND	JPN	KOR	MYS	PHL	SGP	THA	전체
성별	여	36.1	51.5	57.9	32.5	77.8	78.3	71.4	72.5	59.9
	남	32.9	53.5	45.1	28.4	72.8	73.2	69.3	77.3	56.3
연령	20~29	40.0	53.5	51.3	42.0	79.1	76.1	69.1	74.7	61.9
	30~39	31.8	50.5	52.2	29.9	78.5	77.8	74.0	73.8	59.0
	40~49	28.9	53.0	46.4	30.6	75.3	71.6	65.6	73.7	55.4
	50~59	34.8	57.1	52.1	24.0	68.7	74.2	73.2	75.8	56.4
	60~69	40.7	43.5	57.6	21.1	58.7	80.9	72.6	78.9	55.9
교육	중졸이하	31.5	45.8	46.9	17.9	68.4	68.1	68.2	73.3	57.2
	고졸	29.8	61.2	44.7	28.7	80.0	77.1	70.2	74.2	55.9
	대졸이상	44.4	71.4	60.9	39.0	82.0	83.0	77.8	78.4	62.8
소득	하	27.5	37.9	42.8	20.8	60.8	69.6	63.8	70.0	45.3
	중	34.3	50.4	60.8	34.1	77.0	79.2	72.0	72.7	58.5
	상	40.5	64.0	65.1	48.1	83.0	78.4	73.8	77.4	69.1
전체(N=8067)		34.5	52.4	52.2	30.5	75.4	75.8	70.4	74.8	58.2

〈표 1〉에서 제시하듯이 말레이시아가 75.4%, 필리핀이 75.8%로 가장 높은 행복지수를 나타냈으며, 한국이 30.5%, 대만이 34.5%로 삶의 만족이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남성의 56.37%, 여성의 59.9%가 자신의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¹⁵⁾ 과거 삶의 질 연구에서 삶의 행복이 특정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관련이 있으며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20대의 61.9%, 60대 이상에서 55.9%가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서는 45.3%가 행복감을 느낀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69.1%가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 상관분석

〈표 2〉는 국가별 그리고 8개 국가의 전체 데이터(pooled data)를 이용하여 설명변수로 제

15) 8개 국가 중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근소한 차이지만 여성보다 남성이 더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시된 정부의 질의 구성개념인 참여와 책임감, 정치적 안정성,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 부패 통제와 통제변수인 사회신뢰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간의 단순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가별 상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8개국 모든 국가에서 삶의 만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정부의 질은 참여, 정치적 안정,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로 나타났다.

〈표 2〉 정부의 질과 삶의 만족(행복)의 상관분석

	TWN	IND	JPN	KOR	MYS	PHL	SGP	THA	전체
설명변수(정부의 질)									
참여와 책임감									
참여(0-3점)	.090**	.241***	.149***	.120***	.193***	.088**	.091**	.146***	.141**
책임감(0-4점)		.115***	.069*			-.077*	.147***		.090**
정치적 안정(0-3점)	.162***	.177***	.221***	.182***	.237***	.221***	.215***	.205***	.244**
정부효과성(0-3점)	.112**	.207***	.144***	.074*	.163***	.094**	.214***	.170***	.250**
법의 지배(0-3점)	.158***	.176***	.121***	.118***	.219***	.148***	.210**	.200***	.241**
부패통제(0-3.5점)		.107**	-.065*		.116**		.109**		.144**
통제변수									
사회신뢰(0-1점)	.165***	.021	.089**	.118***	.038	.068*	.125***	.106**	-.042**

주: 게재된 수치는 피어슨 상관관계계수이다.

사회신뢰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 사회신뢰와 삶의 만족관계는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상관분석에서는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 모두 행복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도와 활동 중 참여 제도에 만족하고,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높다. 또한 정치적인 안정, 정부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와 부패통제는 삶의 만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통제변수로 제시된 사회신뢰도 시민들의 행복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3. 삶의 만족과 정부의 질: 회귀분석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하였던 정부의 질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아시아 8개국의 삶의 만족(행복지수)을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정부의 질에 대한 구성변수(참여와 책임감, 정치적 안정,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 부패

통제)를 영향변수로, 통제변수인 사회신뢰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정부의 질이 삶의 만족(행복)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TWN	IDN	JPN	KOR	MYS	PHL	SGP	THA	전체
설명변수									
참여와 책임감									
참여	.060	.178***	.079	.085*	.097*	.029	.035	.086**	.091***
책임감	-.007	.003	.060	-.029	-.047	-.093*	.090*	-.016	.000
정치적 안정	.141***	.059	.155**	.128**	.190***	.179***	.091*	.125***	.128***
정부효과성	.002	.140***	.029	-.005	.045	.040	.140**	.074*	.123***
법의 지배	.099*	.055	.003	.077	.067	.055	.068	.118**	.095***
부패통제	-.041	.063	-.129**	-.033	.064	.026	-.009	.005	.017
통제변수									
사회신뢰									
사회신뢰	.101**	.045	.091*	.065	.088*	.063	.070	.060	-.027
인구사회학적 변수									
남자	-.088*	.054	-.169***	-.092**	-.103**	-.072*	-.047	-.002	-.055***
연령	.043	-.029	-.007	-.092*	-.031	.027	.019	.027	-.011
소득	.093**	.209***	.200***	.250***	.179***	.094*	.090*	.078*	.172***
교육	.119**	.131***	.102*	.094*	.051	.187***	-.023	.067	.075***
N	1006	1000	1012	1023	1000	1000	1038	1000	8079
R-squared	.087	.173	.136	.173	.133	.107	.080	.081	.145

주: ***p < .001, **p < .01, *p < .05

주: 수치는 표준화된 회계계수 β값이다.

먼저 <표 3>의 분석결과에서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참여와 책임감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참여변수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변수 중에서 참여 변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임감은 싱가포르에서는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필리핀은 이론적 기대와는 달리 부(-)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적 안정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7개 국가에서 삶의 만족(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일수록 생활수준에 만족하며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정부효과성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에서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시민들의 삶의 만족은 정부효과성이 다른 영향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넷째, 법의 지배는 대만, 태국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부패통제는 8개 국가 중에서 일본만이 삶의 만족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시민들의 삶의 만족(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질은 유일하게 부패통제만이 확인되었으나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제시된 가설과는 달리 부(-)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통제변수로 포함된 사회신뢰는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에서 사회신뢰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통제 변수인 성별은 대만,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연령은 한국만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8개국에서 모두 유의미한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같이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에 만족하며 행복지수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수준은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필리핀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8개국의 전체 데이터(pooled data)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정부의 질의 영향요인 중에서 책임감과 부패통제를 제외한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참여, 정치적 안정,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에서는 연령을 제외한 모두 변수에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사회신뢰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V. 논의 및 맺음말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된 AsiaBarometer Survey의 아시아 8개국을 대상으로 아시아 각국 시민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대사회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발전 이외에 개인적, 제도적, 사회·환경적 요인 등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을 선두로 시민들의 복리와 더불어 삶의 질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국가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삶의 만족, 행복 등

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의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계획·집행, 그리고 정부 활동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부의 질을 향상시킴으로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8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질이 시민의 삶의 만족과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생활수준의 만족과 행복감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만과 한국은 낮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결과는 이론적 논의에서 도출된 정부의 질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의 초점이었던 정부의 질 구성요소 중에서 유의미하게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대만은 정치적 안정, 법의 지배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인도네시아의 시민들은 참여와 정부효과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민주화 이후 AsiaBarometer 조사가 실시된 2007년 이전까지의 총선은 폭력사태와 부정선거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권과 선거권 등 참여에 대한 제도에 대한 평가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유의미한 요인이 참여와 정치적 안정으로 나타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의미한 요인으로 발견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해석은 다를 가능성이 있다. 말레이시아는 여러 종족이 어우러진 국가로 여타 다수 종족으로 이루어진 신생민주주의국가들의 현대사가 심각한 분열, 파편화와 전쟁으로 힘들었던 것과는 달리, 말레이시아는 민주화이후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치적인 안정은 삶의 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필리핀은 정치적 안정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책임감은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필리핀의 문화적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정 관료와 정치인들은 공사구분이 철저하지 못하며 사적이익을 보편이익 또는 공익보다 앞세우는 특수주의와 가산제적 정치문화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정치문화를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인식의 문제로 인해 책임감이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민들은 시민전체의 공익이 아닌 개인 자신에게 혜택이 돌아오면 정부는 국민에게 봉사하며 책임감이 있다고 인식하기에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박승우, 2009). 싱가포르의 책임감, 정치적 안정과 정부효과성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 태국은 참여와 정치적 안정,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 등 정부의 질 요소 중 네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본은 정치적 안정과 부패통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부패통제의 경우 기대와는 달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¹⁶⁾

16) 일본의 부패통제 결과의 해석은 필리핀의 정치문화와 유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나 유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일본의 정치부패를 이익정치와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해석의 실마리로 볼

7개 국가에서 정치적 안정에 관한 시민들이 인식하는 정부의 질은 개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유의미한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가 종교적 갈등이나 인종 갈등 그리고 시민의 안전 문제를 잘 해결할수록 생활수준에 만족하고 행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각 국의 시민들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이 인식하는 정부의 질은 다르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 중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치적 안정, 참여,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로, 부정적인(-)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패통제인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잘 운영할수록,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잘 운영하고 교육체계를 잘 마련할수록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가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의 법의 지배가 잘 이루어져 경찰과 사법체계를 신뢰할수록 시민들은 삶의 만족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통제변수인 사회신뢰의 경우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만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여자가 더 행복을 느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더 삶에 만족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연령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젊을수록 행복하다는 기존 결과와는 달리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행복은 연령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은 아시아 국가에서 삶의 만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을 두고 개선하고 증진시켜야 할 정부의 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를 사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데이터(pooled data)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보장과 정부효과성, 그리고 법의 지배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통제변수에서는 성별, 연령, 소득, 교육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사회신뢰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질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국가마다 유의미한 영향요인은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참여,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는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가별 분석에서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 중 유의미한 요인이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각 국의 시민들의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

수 있다. 일본은 이익정치는 정치가,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도 사적인 이해의 실현이라는 동기를 갖고 정치에 관계하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임은 얽어지게 되고 정치의 동별이 수단으로 인식하게 됨을 의미한다(이상훈, 2002). 이익정치를 통제할수록 시민 개인에게 돌아오는 이익(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과 삶의 만족(행복)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시민들의 인식과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통제되지 않은데서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는 이 연구의 한계로도 볼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개념요소의 문제로 인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가까운 정부의 제도와 활동에 대해서는 경험과 정보를 통해 정확한 평가와 인식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정부의 제도나 활동에 대해서는 경험과 정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질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더 자세히 탐색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 수준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지표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또한 다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부활동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에서 사용한 AsiaBarometer Survey는 2005년부터 2008년에 실시된 조사로서 최근 각국의 정부활동과 제도에 대한 평가와 삶의 만족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정부의 질과 관련된 정부활동이나 제도는 단기간 내에 성과나 도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시민의 평가 역시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인식하는 정부의 질과 삶의 만족간의 이론적인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함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삶의 만족은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질 또한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시민 개인이 인식하는 정부의 질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둔다. 본 연구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정부가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력해야 할 제도와 정책, 그리고 정부활동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데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참고문헌

- 고명철. (2013). “일반논문: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 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7(2), 1-30.
- 고명철·최상욱 (2012). “삶의 질(QoL) 연구의 행정학적 함의와 제언”. 「한국행정학보」, 46(4): 103~126.
- 김태룡·오승석·주기남·안희정 (2000).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2): 135-155.
- 박길성(2002).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아세아연구」, 45(2).
- 박승우(2009). “민주적 이행 이후 필리핀 민주주의의 성격과 한계”. 「동남아시아연구」, 19(3).

- 박종민·김서용. (2002). “한국인의 삶의 질: 전체, 개별영역 및 비교기준”. 『아세아연구』, 45(2), 141-164.
- 박종민·장용진. (2012). “기획논문: "좋은 시민"과 "좋은 정부"”. 『정부학연구』, 18(1), 3-23.
- 박희봉·이희창. (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경제, 사회적 요인인가? 사회 자본 요인인가?”, 『한국행정논집』, 17(3), 709-729.
- 서재호·김혜정·이승중. (2012).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으로서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6(1), 33-56.
- 양현미(2007), “문화의 사회적 가치: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상훈(2002). “일본의 정당정치와 부패”. 『국제정치연구』, 5(2).
- 이태종·이근수·송건섭·이승철 (2005). “광역생활권내 자치단체간 삶의 질 비교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2): 211-229.
- 이현우. (2013). “정부의 질: 공정성의 비판적 고찰”. 『세계지역연구논총』, 31(1), 7-28.
- 조명환·김정오·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61-94.
- 최준호·이환범·송건섭 (2003). “광역도시와 인근중소도시지역주민간의상호이주영향요인평가: 공공서비스 질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1): 183~203.
- Bjørnskov, C., Dreher, A., & Fischer, J. A. (2010). Formal institutions and subjective well-being: Revisiting the cross-country evidenc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6(4), 419-430.
- Catterberg, G., & Moreno, A. (2006). The Individual Bases of Political Trust: Trends in New and Established Democra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8(1), 31-48.
- Cummins, R. A. & H. Nistico (2002). Maintaining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positive cognitive bia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1): 37-69.
- Diener, E. (2009). *Well-being for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
- Easton, D. (1965).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Eckersley, R. (2000). The state and fate of nations: Implications of subjective measures of personal and social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2(1), 3-27.
- Evans, P., & Rauch, J. E. (1999). Bureaucracy and growth: a cross-nation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Weberian" state structures on economic grow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8-765.
- Frey, B. S., & Stutzer, A. (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The Economic Journal*, 110(466), 918-938.
- Glaser, M. A., Aristigueta, M. P., & Payton, S. (2000). Harnessing the Resources of Community: The

- Ultimate Performance Agenda.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3(4): 428-448.
- Grzeskowiak, S., Sirgy, M. J., & Widgery, R. (2003).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ervices: Predictors and outcomes. *Journal of Regional Analysis and Policy*, 33(2): 1-36.
- Helliwell, J. F., & Huang, H. (2008). How's Your Government? International Evidence Linking Good Government and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04), 595-619.
- Hollar, D. (2003). A holistic theoretical model for examining welfare reform: Quality of lif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1), 90-104.
- Huntington, S. P. (1991). Democracy's Third Wave. *Journal of Democracy*, 2(2), 12-34.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Trust, Well-Being and Democracy. In M.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 Kaufmann, D., Kraay, A., & Mastruzzi, M. (2009). *Governance matters VIII: aggregate and individual governance indicators, 1996-2008*.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4978).
- Kirkcaldy, B., Furnham, A., & Veenhoven, R. (2005). 26 Health car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nations. *Research companion to organizational health psychology*, 393.
- Knack, S. and P. Keefer. 1995.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ross-Country Tests Using Alternative Measures." *Economics and Politics*, 7, pp. 207-227.
- La Porta, R., Lopez-de-Silanes, F., Shleifer, A., & Vishny, R. (1999). The quality of government.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15(1), 222-279.
- Lambiri, D., Biagi, B., & Royuela, V. (2007). Quality of life in the economic and urban economic literature. *Social Indicators Research*, 84(1), 1-25.
- Michalos, A. C. (2003). Policing services and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1(1), 1-18.
- Milbrath, L. W. (1979). Policy relevant quality of life research.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44(1), 32-45.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10-19.
- OECD (2006), *Society at a Glance: OCED Social Indicator*. OECD.
- Ott, J. C. (2010). Good governance and happiness in nations: Technical quality precedes democracy and quality beats siz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3), 353-368.
- Rauch, J. E. (1995) "Bureaucracy, Infra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U.S. Cities During the Progressive Era." *American Economic Review* 85 (4): 968-979.
- Rode, M. (2013). Do Good Institutions Make Citizens Happy, or Do Happy Citizens Build Better Institu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5), 1479-1505.

- Rothstein, B. O., & Teorell, J. A. N. (2008). What Is Quality of Government? A Theory of Impartial Government Institutions. *Governance*, 21(2), 165-190.
- Samanni, M., & Holmberg, S. (2010). *Quality of Government Makes People Happy*. QoG Working Paper Series, 1.
- Seidman, E., & Rapkin, B. (1983). Economics and psychosocial dysfunction: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and prevention strategies. *Preventive psychology*, 175-198.
-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1-4), 475-492.
- Sirgy, M. J. (2001). *Handbook of Quality-of-Life Research: An Ethical Marketing Perspective*. Springer Netherlands.
- Sirgy, M. J., Gao, T., & Young, R. (2008). How Does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ervices Influence Quality of Life (QOL) Outcome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3(2): 81-105.
- Stock, W. A., Okun, M. A., & Benin, M. (1986).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Psychology and Aging*, 1(2), 91.
- Svallfors, S. (2012). *Does Government Quality Matter? Egalitarianism and attitudes to taxes and welfare policies in Europe*. Sociologiska institutionen.
- Veenhoven, R. (1984). *Conditions of Happiness*. Dordrecht: Kluwer Academic.
- _____. (1996). Happy life expectancy: a comprehensive measure of quality of life in nati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39, pp. 1-58.
- Whiteley, P., Clarke, H. D., Sanders, D., & Stewart, M. C. (2010). Government performance and life satisfaction in contemporary Britain. *The Journal of Politics*, 72(03), 733-746.
- WHO(2004),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WHOQOL)-BREF. World Health Organization

ABSTRACT

Lif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Government

Jung-Hyun Bae

Good government in modern democratic countries aims to promote the welfare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ir citizens. Individual countries attempt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citizens by enhanc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The present study explores the enabling factors that influence the life satisfaction (or happiness) of citizens with an investigation of the association between citizen perceptions of the quality of government and life satisfaction in eight Asian countries. The study shows that the significant factors varied across countries but, the factors that make up the quality of government, including citizen participation institutions, political stability,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rule of law,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itizen life satisfaction.

【Keywords: life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happiness, quality of government】